

미니테스트 제 13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2019행언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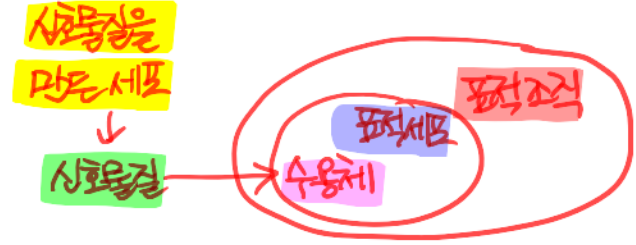
① 생체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것에는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이 있다. 이 신호물질이 작용하는 표적세포는 신호물질을 만든 세포에 인접한 세포 중 신호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은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 세포가 있는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한다.

② 대표적인 기체 형태의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먼저 표적조직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리적 현상을 유도하는 자극이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작용한다. 이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산화질소 합성효소는 그 세포 내에 있는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인접한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표적세포 안에 있는 'A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A 효소는 표적세포 안에서 cGMP를 생성하고, cGMP는 표적세포의 상태를 변화게 한다. 결국 표적세포의 구조적 상태가 변함에 따라 표적세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③ 혈관의 팽창은 산화질소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공간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내피세포층이 감싸고 있다. 이 내피세포층의 바깥쪽을 혈관 평활근세포로 된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감싸고 있다. 혈관이 팽창되기 위해 먼저 혈관의 내피세포는 혈관의 팽창을 유도하는 자극을 받는다. 이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세포에 작용하여 세포 내에서 cGMP를 생성한다. cGMP의 작용으로 수축되어 있던 혈관 평활근세포가 이완되고 결국에 혈관 평활근육 조직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팽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화질소의 기능 때문에 산화질소를 내피세포-이완인자라고도 한다.

- ① cGMP는 혈관 평활근육 조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 ② 혈관의 내피세포는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가지고 있다.
- ③ 혈관 평활근세포에서 A 효소가 활성화되면 혈관 팽창이 일어난다.
- ④ A 효소는 표적세포에서 아르기닌과 산소로부터 산화질소를 생성시킨다. → 산화질소 합성효소
- ⑤ 혈관 평활근세포는 내피세포-이완인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문 2. 다음 글의 ㉠을 약화하지 않는 것은?

2019행언가-18

㉠ 쾌락주의자들은 우리가 쾌락을 욕구하고, 이것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느끼기 위한 우리 행동의 원인은 음식과 같은 외적 대상에 대한 욕구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외적 대상에 대한 욕구 이외의 것, 가령, 쾌락에 대한 욕구는 우리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럼 반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욕구에서 행동, 그리고 쾌락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연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 → 먹는 행동 → 쾌락

㉡ 이런 인과적 연쇄를 보았을 때 쾌락이 우리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쾌락은 행동 이후 생겨났고, 나중에 일어난 것이 이전에 일어난 것의 원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런 반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은 두 개의 욕구, 즉 음식에 대한 욕구와 쾌락에 대한 욕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무엇이 음식에 대한 욕구의 원인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의 인과적 연쇄에 음식에 대한 욕구의 원인인 쾌락에 대한 욕구를 추가해야 한다.

㉣ 사람들이 음식을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쾌락을 욕하기 때문이다. 반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이 범하고 있는 실수는 두 개의 사뭇 다른 사항들, 즉 욕구가 만족되어 경험하는

쾌락과 쾌락에 대한 욕구를 혼동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쾌락의 발생이 행위자가 쾌락 이외의 어떤 것을 원했기 때문이더라도, 쾌락에 대한 욕구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 ㉠ 어떤 욕구도 또 다른 욕구의 원인일 수 없다.
- ㉡ 사람들은 쾌락에 대한 욕구가 없더라도 음식을 먹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 ㉢ 음식에 대한 욕구로 인해 쾌락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
- ㉣ 외적 대상에 대한 욕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야기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일 뿐이다.
- ㉤ ☒ 맛있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욕구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 얻게 될 쾌락에 대한 욕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 얻게 될 쾌락에 대한 욕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쾌락에 대한 욕구 →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구
㉠에서 반박함 ㉡과 반대구조 ㉢에서 반박함

음식에 대한 욕구 → 쾌락에 대한 욕구

→ 쾌락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을 약화 X

㉡에서 반박함

문 3. 다음 글의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행언가-29

갑: 우리는 타인의 언어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추론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철수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그러면 철수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철수에게 신체적인 위해라는 특정 자극이 주어졌다는 것과 그가 **신음 소리라는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철수가 **고통이라는 심리 상태**에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을: 그러한 추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 **A 원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자극에 따른 철수의 행동으로부터 철수의 고통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A 원리가 성립하는지는 아주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로봇이 우리 인간과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Y \wedge \sim X$

병: 나도 A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그는 **고통을 느끼는 척하는 방법**을 배운다. 많은 연습 끝에 그는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졌을 때 비명을 지르고 찡그리는 등 고통과 관련된 행동을 완벽하게 해낸다. 그렇지만 그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Y \wedge \sim X$

정: 나도 A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해가 가해져 **(*) 고통을 느끼지만 비명을 지르는 등 고통과 관련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을 예외적인 사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고통을 참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을: 고통을 참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존재가 내가 얘기한 **A 원리에 대한 반박 사례인 것은 아니다.**

- ㉠ 어떤 존재의 **특정 심리 상태 X**가 관찰 가능할 경우, X는 항상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 Y**와 동시에 발생한다.
- ㉡ 어떤 존재의 **특정 심리 상태 X**가 항상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 Y**와 동시에 발생할 경우, X는 관찰 가능한 것이다.
- ㉢ 어떤 존재에게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 Y**가 발생할 경우, 그 존재에게는 항상 **특정 심리 상태 X**가 발생한다.
- ㉣ 어떤 존재에게 **특정 심리 상태 X**가 발생할 경우, 그 존재에게는 항상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 Y**가 발생한다.
- ㉤ 어떤 존재에게 **특정 심리 상태 X**가 발생할 경우, 그 존재에게는 항상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 Y**가 발생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sim (X \wedge \sim Y) \equiv (\sim X \vee Y) \equiv (Y \rightarrow X)$$

$X \wedge \sim Y$... 반박 불가

$$X \rightarrow X \wedge Y$$

$$X \wedge Y \rightarrow X$$

$$Y \rightarrow X$$

$$X \rightarrow Y$$

$$X \leftrightarrow Y$$

문 4.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칠언모-17

일반행정 직렬 주무관으로 새로 채용된 갑진, 을현, 병천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한 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가인, 나운, 다은, 라연은 배치 결과를 궁금해 하며 다음과 같이 예측했는데, 이 중 한 명의 예측만 틀렸음이 밝혀졌다.

가인: 을현은 행정안전부에, 병천은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거야.
나운: 을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면, 갑진은 고용노동부에 배치될 거야.
다은: 을현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지 않으면, 병천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될 거야.
라연: 갑진은 고용노동부에, 병천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될 거야.

—<보 기>—

ㄱ 갑진은 고용노동부에 배치된다.
ㄴ 을현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된다. → 보건복지부 배치도 퍼
ㄷ 라연의 예측은 틀렸다. → 오소 (if 전거짓)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가: 을현 \wedge 병보 \Rightarrow 갑고, 을행, 병보 \leftarrow
나: 을행 \rightarrow 갑고 \Leftrightarrow ~을행 \vee 갑고
다: ~을행 \rightarrow 병행 \Leftrightarrow 을행 \vee 병행
라: 갑고 \wedge 병행 \Rightarrow 갑고, 을보, 병행 \leftarrow

동시에 참되지

1) 가인이 거짓인 경우 \rightarrow 갑고, 을보, 병행 } 두 경우 모두 퍼
2) 라연이 " \rightarrow 갑고, 을행, 병보 }

문 5. 다음 <표>는 '갑'지역 조사 대상지에 대한 A, B 두 기관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상호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행자나-30

<표> 토지피복 분류 결과

(단위: 개소)

		B 기관							
A 기관	대분류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체 지역	소계	
	세부 분류	논	밭	침엽 수림	활엽 수림	혼합 림	하천		
	농업 지역	논	840	25	30	55	45	35	1,030
		밭	50	315	20	30	30	15	460
	산림 지역	침엽 수림	85	50	5,230	370	750	20	6,505
		활엽 수림	70	25	125	3,680	250	25	4,175
		혼합림	40	30	120	420	4,160	20	4,790
	수체 지역	하천	10	15	0	15	20	281	341
소계		1,095	460	5,525	4,570	5,255	396	17,301	

$$\begin{array}{r} 6,505 \\ 4,175 \\ + 4,790 \\ \hline 15,470 \end{array}$$

$$\begin{aligned} \textcircled{4} \text{ 합계} &= (6,505 + 4,175 + 4,790) \\ &\quad - (\underbrace{85 + 50 + 20 + 70 + 25 + 25}_{100} + \underbrace{40 + 30 + 20}_{100}) \\ &= 15,470 - 205 = 15,265 \end{aligned}$$

- ① A 기관이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B 기관이 혼합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은, B 기관이 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A 기관이 혼합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과 같다.
- ② B 기관이 침엽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10% 이상을 A 기관은 다른 세부분류로 분류하였다.
- ③ B 기관이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A 기관도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은, A 기관이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B 기관도 논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과 같다.
- ④ 두 기관 모두 산림지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두 기관 모두 활엽수림으로 분류한 대상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이다.
- ⑤ 두 기관 모두 농업지역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세부분류로 분류한 대상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A 또는 B 기관이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 중 두 기관 모두 하천으로 분류한 대상지의 비율보다 크다.

$$\textcircled{1} \frac{30}{460} = \frac{30}{460}$$

$$\textcircled{2} 30 + 20 + 25 + 20 = 95 < 5,525 \times 10\%$$

$$\textcircled{3} \frac{840}{1,095} \neq \frac{840}{1,090}$$

$$\textcircled{4} \frac{3,680}{15,105} < 30\%$$

$$\textcircled{5} \frac{25 + 50}{840 + 25 + 50 + 35} < \frac{281}{396 + 341 - 281} \text{ (자대보소)}$$

문 6. 다음 <표>는 A, B 기업의 경력사원채용 지원자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자가-05

<표> 경력사원채용 지원자 특성 (단위: 명)

지원자 특성		기업	A 기업	B 기업
성별	남성		53	57
	여성		21	24
최종 학력	학사		16	18
	석사		19	21
	박사		39	42
연령대	30대		26	27
	40대		25	26
	50대 이상		23	28
관련 업무 경력	5년 미만		12	18
	5년 이상 ~ 10년 미만		9	1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8	17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9
	20년 이상		19	25

※ A 기업과 B 기업에 모두 지원한 인원은 없음.

- <보 기>
- ㄱ. A 기업 지원자 중, 남성 지원자의 비율은 관련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지원자의 비율보다 높다.
 - ㄴ. 최종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인 B 기업 지원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지원자는 7명 이상이다.
 - ㄷ. 기업별 여성 지원자의 비율은 A 기업이 B 기업보다 높다.
 - ㄹ. A, B 기업 전체 지원자 중 40대 지원자의 비율은 35% 미만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frac{25+26}{174+81} = \frac{51}{155} < \frac{1}{3} < 35\%$$

$$25 - 18 = 7$$

$$25 - 18 = 7$$

$$\frac{21}{74} \text{ vs } \frac{24}{81}$$

$$10\% \uparrow$$

$$10\% \downarrow$$

문 7. 다음 <표>는 A ~ E 국의 최종학력별 근로형태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갑’국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국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2020행자나-07

<표> A ~ E 국 최종학력별 근로형태 비율
(단위: %)

최종학력 \ 근로형태		국가				
		A	B	C	D	E
중졸	전일제 근로자	35	31	31	39	31
	시간제 근로자	29	27	14	19	42
	무직자	36	42	55	42	27
고졸	전일제 근로자	46	47	42	54	49
	시간제 근로자	31	29	15	20	40
	무직자	23	24	43	26	11
대졸	전일제 근로자	57	61	59	67	55
	시간제 근로자	25	28	13	19	39
	무직자	18	11	28	14	6

—<보고서>—
‘갑’국의 최종학력별 전일제 근로자 비율은 대졸이 고졸과 중졸보다 각각 10%p, 20%p 이상 커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고졸의 경우 중졸과 대졸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3%p 이하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최종학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갑’국의 무직자 비율은 대졸의 경우 20% 미만이며 고졸의 경우 25% 미만이지만, 중졸의 경우 30% 이상이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문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19행상가-06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금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상 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 乙이 납부해야 함
-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 이하이다. ~~옳다~~
-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 A, B회사 주권 양도만 해당
-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300~~
-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begin{aligned}
 100 \times 2\text{만} &= 200\text{만} \rightarrow 200\text{만} \times \frac{1.5}{1,000} = 0.45\text{만} \\
 200 \times 1\text{만} &= 200\text{만} \rightarrow 200\text{만} \times \frac{3}{1,000} = 0.6\text{만} \\
 200 \times 5\text{만} &= 1,000\text{만} \rightarrow 1,000\text{만} \times \frac{5}{1,000} = 5\text{만}
 \end{aligned}
 \left. \begin{array}{l} \\ \\ \end{array} \right\} 6.05\text{만}$$

$$\begin{aligned}
 200 \times 5\text{만} \times \frac{3}{1,000} &= 3\text{만} \\
 \therefore 5\text{만} - 3\text{만} &= 2\text{만}
 \end{aligned}$$

문 9.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출장을 함께 갈 수 있는 직원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2019행상가-31

A은행 B지점에서는 3월 11일 회계감사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본점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 08시 정각 출발이 확정되어 있으며, 출발 후 B지점에 복귀하기까지 총 8시간이 소요된다. 단, 비가 오는 경우 1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 출장인원 중 한 명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甲, 丁**
- 출장시간에 사내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는 출장을 갈 수 없다.
- 출장인원 중 **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류 박스 운반 지연으로 인해 30분이 추가로 소요된다.
- **차장은 책임자로서 출장인원에 적어도 한 명 포함되어야 한다.** **甲, 乙**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8+8+1
=17시
도착

<상 황>

- 3월 11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
- 3월 11일 당직 근무는 17시 10분에 시작한다.

직원	직급	운전면허	건강상태	출장 당일 사내 업무
甲	차장	1종 보통	부상	없음
乙	차장	2종 보통	건강	17시 15분 계약업체 면담
丙	과장	없음	건강	17시 35분 고객 상담
丁	과장	1종 보통	건강	당직 근무 → 17:10
戊	대리	2종 보통	건강	없음

- ① ~~甲, 乙, 丙~~
- ② ~~甲, 丙, 丁~~
- ③ ~~乙, 丙, 戊~~ → **운전면허**
- ④ ~~乙, 丁, 戊~~
- ⑤ ~~丙, 丁, 戊~~ → **차장**

* **甲(부상)** 포함시 B지점 복귀 시간 = 17:30
∴ **乙, 丁 포함 X (①, ② 제거)**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19행상가-32

○○기업은 5명(甲 ~ 戊)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은 가치관, 열정, 표현력, 잠재력, 논증력 5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 점수는 3점 만점이다. 이에 따라 5명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면접시험 결과>

(단위: 점)

구분	甲 3	乙 1	丙 5	丁 4	戊 2
가치관	3	2	3	2	2
열 정	2	3	2	2	2
표현력	2	3	2	2	3
잠재력	3	2	2	3	3
논증력	2	2	3	3	2

종합점수는 각 항목별 점수에 항목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수를 결정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수>

1등	乙
2등	戊
3등	甲
4등	丁
5등	丙

- ① 잠재력은 열정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② 논증력은 열정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 ③ 잠재력은 가치관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④ 가치관은 표현력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 ⑤ 논증력은 잠재력보다 항목가중치가 높다.

*재 평가가 있어서 점수가 같고 나머지 2개 평가기준은 서로 점수 대조가 엇갈리는 사람에게서 비교

甲 vs 丙 → 잠재력 > 논증력 → ⑤ X
甲 vs 丁 → 가치관 > 논증력
甲 vs 戊 → 표현력 > 가치관 → ④ X
乙 vs 戊 → 열정 > 잠재력 → ① X
丙 vs 丁 → 잠재력 > 가치관 → ② 0

열정 > 논증력 → ② X